

## 특강2 : 주식농부의 투자철학

(박영욱 스마트인컴 대표)

1. 일시 : 6월 12일 13:00- 15:00
2. 장소 : 대 회의실
3. 대상 : 경영전략 수강자 및 중소기업대학원 원우
4. 주제 : 주식농부의 투자철학
5. 기타

강연후 간단한 질의.응답시간 제공예정

\*\*\* 평소 듣기 어려운 강연임으로 모든 원우들 참석을 희망함.



## 특강2 : 주식농부의 투자철학

(박영욱 스마트인컴 대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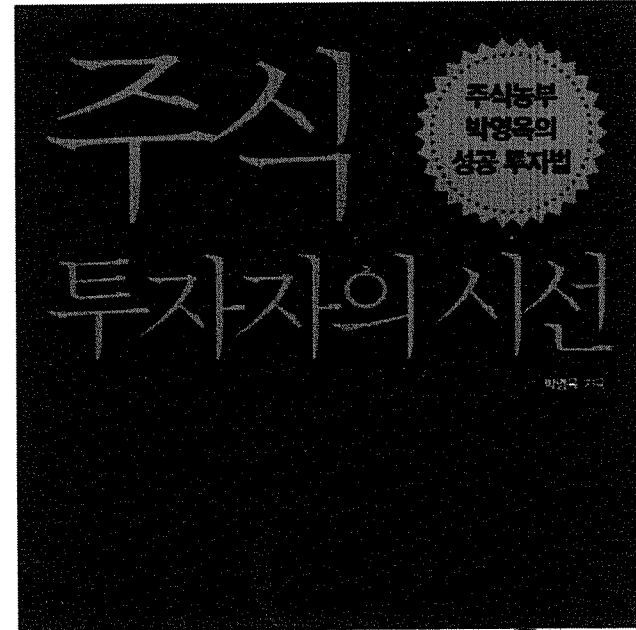
[파이낸셜뉴스] 개인투자자들이 적극적으로 증시 투자 대열에 합류하며 2021년 1월 코스피는 3000시대를 열었다. 과열이나, 거품이나 논란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절대 과열이 아니다. 이제 시작"이라고 말하는 이가 있다. 30년 넘게 국내 주식 투자로 부를 축적한 스마트인컴 박영욱 대표(사진)의 말이다.

주식농부로 더 많이 알려진 박 대표는 근로소득만으로 부자의 길을 가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시대가 됐다면서 주식에 적극 투자할 때라고 강조했다.

박 대표는 동학개미 열풍과 코스피 3000 돌파에 대해 "코스피 3000포인트를 '시작'이라고 본다.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해소되고 '코리아 프리미엄' 시장으로 갈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이라면서 "우리의 자산구조가 변화되고 있다"는 의견을 내놨다. 그는 "부동산은 더 이상 자산증식수단이 될 수 없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이렇다 보니 부동산에 편중된 자산이 금융시장으로 이동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보험이나 예금을 갠 자금이 주식시장으로 들어오고 있다. 단순히 유동성의 문제가 아닌 수급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박 대표는 우리 자본시장이 외국인과 기업인에게 예속돼 있었다는 점을 지적하며 개인투자자의 힘이 세지고 있는 점이 긍정적인 현상이라고 강조했다.



### 개인투자자의 한계를 뛰어넘는 최고의 투자 교과서

주식투자에 대한 남다른 열망! 성공투자의 모든 것은 생활에 갇혔었다. 일상의 변화에서 사상의 변화로 살고, 장밋한 꿈꾸는 거대한 소용돌이 속에서 대한 혁신적 투자이다.

